

Hermann Cohen의 Kant 해석*

鄭 鎮

目 次

- I. 經驗의 問題 (Das Problem der Erfahrung)
- II. 理性批判의 方法
- III. 理性批判의 조직과 構成

I. 經驗의 問題 (Das Problem der Erfahrung)

Hermann Cohen에 의하면 Kant는 그의 學的 活動의 初期에 Newton에 의해 原理의 體系로 定礎된 自然科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自然科學에서 認識一般의 理想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理想의 思想안에는 認識의 體系에 대한 理想化한 것의 관계가 있다. 이 關係를 Kant는 물론 그 完全한 의미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가 個別的 自然科學을 통해서 哲學的 問題提起에 到達한 것이 아닌 限, 그러했다. 이와 反對로 일단 哲學的 視點이 파악된 후에, 理想으로서 要求되는 認識의 事實이 學的 理性에 關係되고 學的 理性에 基礎되었다는 方式으로 이 關係가 理想의 思想에서 妥當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關係안에서 認識一般의 體系의 統一이 思惟되었다. Newton의 科學이 이러한 關係안에서 固定됨으로써, 이 Newton의 科學을 認識의 理想으로서 要求하고, 다른 學科들의 定位를 이 Newton의 科學에서 考察하는 것이 이제 哲學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哲學的 關心은 다른 方向을 志向했다. 認識의 理性이 아니라 認識자체가 哲學的으로 確保되어야 했다. 이런 目的을 위해서 認識이 體系의으로, 個別領域으로 分離되었다. 즉 이러한 部分領域들의 哲學的 確保는 동시에 認識자체를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Cohen에 의하면 Kant는 數學的 自然科學을 學的 理性안에 머물게 하고, 이리하여 인식체계에 관련시킴으로써, 자기자신을 個別科學的인 問題史的인 聯關에서가 아니라, 哲學的 問題史的 聯關에 결부시킨다. Cohen은 Platon의 古代哲學의 體系를 論理學, 自然學, 倫理學의 三位性으로 投企했¹⁾ Platon과 同列에 섰다. 自然科學의 歷史的 展開는

* 本 論文은 1984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1) S. 78.

Hermann Cohen, Kants Theorie der Erfahrung, dritte Auflage, verlegt bei Brund Cassirer, Berlin 1918.

후에 이 體系를 파괴했다. 비록 그 體系를 다시 포함할 要求, 따라서 自然科學的인 陣營內에서의 哲學的 基礎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졌지만, Kant 이전에는 이런 方向으로의 단순한 발상에 미치는 사람도 없었다. 이를테면 Lambert, Euler 조차 미치지 못했다. 體系略圖에 있어서 물론 倫理學에 대한 論理學의 관계와 自然科學에 대한 論理學의 관계는 自然科學에 대한 論理學의 관계와 똑같이 중요하다. Kant가 自然科學의 不可缺性을 너무나 承認했기 때문에, 그는 自然科學의 定礎를 그의 課題로서 착수했다. 이 自然科學은 물론 古代의 自然學이나 또는 Newton의 精密科學에 制限되어서는 안되었다. 論理學, 物理學과 倫理學은 學問들의 體系의, 말하자면 任意的 斷面을 표지하는 것이 아니라, 選言的으로 이 體系를 이루고 있다. 自然科學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한 基礎가 놓여있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 基礎는 특수하게 數學的 自然科學 뿐 아니라, 記述的 自然研究와 自然史도 떠받들 수 있는 基礎라야 한다. 그래서 특수대상들로 轉用되는 個別科學들은, 數學的인 自然科學에 그어진 限界를 훨씬 넘어서 간다.²⁾ 個別科學들은, 精密한 研究에 의해서 수행되는 自然科學的인 대상자체의 規定에 의거해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學的 理性的 體系 내에서, 이들 個別科學 역시 自然科學에 속한다. ‘自然學’과 ‘數學的 自然科學’이라는 規定은, 認識領域의 對象的 의미의 全外延을 표지하기에는 不適한 것으로서 立證된다. 그런데 諸學의 體系에서의 認識領域의 定礎가 關心事인 것이다. 體系의 理念자체가 한 새로운 用語를 필요하게 한다. 이 새 용어를 Kant는 經驗(Erfahrung)³⁾이라는 말에서 발견했다. 이 經驗이라는 標語 또는 流行語는 당시에는 다양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用法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 用語는 새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의미로 통용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Kant의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의도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Kant가 철학적 물음의 모든 理論的 關係를 經驗의 合法化에 照準함으로써,⁴⁾ 철학의 문제를 우선 이 ‘名稱’에서 포착했을 때, 이 思想家에 있어서 經驗은, 벌써 통속적, 경험적 연구대상(die populäre experimentiamaterstudiorum)이 아니라, “學的 인식의 사실과 方法에 대한 全體 表現으로서”,⁵⁾ 더우기 論理學과 倫理學과 함께 學的 理性的 體系를 그 全體에 있어서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限, 범위의 全體表現으로서 타당했다. 이러한 전체표현으로서 비로소 경험일반은, 哲學的 의미를 가진다. 이 개념을 規定하는 것, 이것이 哲學의 최초의 과제였다.⁶⁾ 경험에 대한 論理學의 關係에서, 다시 말하면 바로 學的인 理性的 體系의 更新에 있어서 哲學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上述한 바에 의하면 認識體系의 理念이 모든 부분연구에 대해 標準投與的인 최고의 觀

2) S.S.80.

3) S.S.82f.

4) S.83.

5) S.83.

6) S.84.

點을 준다. Hume 으로 소급되는 회의, 즉 數學과 數學의 自然科學에 대해서 表現된 懷疑는 Kant 의 경험의 理論에서 확실히 그의 根本的인 비판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 까닭으로 이들 學科(數學과 數學의 自然科學)의 諸成果에 대한 根本에 있어서 個別科學的인 關心이 최종적으로 決定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의 定礎, 즉 부속학문과 함께 數學的 自然科學의⁷⁾ 定礎는 構成에 있어서(in dem Konstitut) 科學에 認識의 보편적 構成因들의 構成的 의미의 試金石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認識體系의 理念을 위한 科學의 역할은 事象的인 必然性안에서 根據한다; 즉 認識體系의 理念이 自然科學의 價値規定에 특수한 과학의 특수성으로서의 必然性的 思想안에서 궁극적 據點을 준다. 認識體系의 理念이 비로소 價値規定에 대한 方向指示를 준다. 이로부터 또 이 價値規定의 意味가 드러난다. Newton의 科學의 사실이 ‘순수이성비판’에서 문제로 된다. 그래서 물음은,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이 學의 事實인가 하는 물음으로 나아간다. 그 事實이 學의 사실인 限, 그 사실은 認識體系안에서, Platon의 體系的 略圖안에서, 자연이 占有했던 그 位置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이 檢證을 計劃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한가지가 前提되고 있다. 즉 學의 理念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事實은 한 問題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出發하지 않는 어떤 문제도 없다.⁸⁾ 즉 問題로 된 事實이 그 앞에서 存立할 수 있는 法廷에 定位함이 없이는 아무런 問題도 없다.

II. 理性批判의 方法

Cohen의 著作의 緒論은 간략하게 파악된 先驗的 方法의 考察을 包含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주는 것은 分明히 有用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¹⁾ 이에 반해 대단히 중요한 方法論的 思想過程이 계속해서 해석안으로 끼어들고 있다. 우리의 目的을 위해서는 方法論的 考察을 미리 먼저 檢討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Cohen에 의하면 “方法안에서 특히 Kant의 創意性和 使命이 存立한다. 이 方法은 先驗的 方法이다.”²⁾ 이 方法의 原理와 規範이 그대로 思想이다. 意識의 이러한 要素가 認識하는 意識의 要素들이고, 이 要素들은 과학의 사실을 定礎하고 確立하기에 충분하며 必然的³⁾이다. 한 의식요소로서의 科學構成的 의미, 認識體系에서의 그러한 要素의 位階에 대한 規準을 形成한다. 그러나 學의 事實이 그 안에서 자신의 定礎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學의 構成因子들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學으로서의 學의 性格, 즉 이것으로부터 學을 根

7) S. 79.

8) S. 88.

1) S. 108.

2) S. 89.

3) S. 108.

據주는 法廷으로 推理되어야 하는 바, 學의 性格은 어디에 存立하는가? 學의 보편타당성과 必然性에 대한 指示는, 이 “外的 가치표시가 표지하는 內的 價値가 보증되지 않는 限, 중요하지 않다.”⁴⁾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數學과 物理學이 學으로 되었는가하는 것을 Kant가 考量하는 論理的 장소이다. Kant가 經驗으로서 內的 價値의 哲學的 問題로 만드는 複合體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그의 結果의 보편타당성과 必然性이라는 學의 가치를 얻었는가? 그것은 經驗의 概念에서의 轉回⁵⁾를 통해서이고, 이 轉回는 다음의 것안에, 즉 學의 文藝復興以來로 經驗이 왔다가는대로, 無計劃의 經驗에 의해서 引導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學의 實驗에서(構成에서의 數學의 節次에 유사하게) 經驗을 方法的으로, 計劃的으로 產出하는 것안에 놓여 있다. 實驗안에서 學은 經驗들 一般에게 비로소 理論的 權利를 承認한다. 이 權利의 限界에서 學은 意味를 劃得한다. 學이 그의 물음에 대해 대답하는 限, 學的 經驗의 全體에 속한다. 그러나 學이 물음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대상성을 제공하는 限은, 그 學은 學的 經驗의 전체에 속하지 않는다. 學的 經驗이 學을 形成하고, 이리하여 學의 投企에 따라 經驗의 이러한 產出을 통해서⁶⁾ 비로소 學의 經驗전체의 妥當性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 사실들에 關한, 制限된 熟知以上の 것을 形成한다.

產出의 思想에서 Kant는 이제 우선은 보편적인 표상⁷⁾이라는 의미에서 뿐이지만, a priori라는, 方法的으로 중요한 概念을 얻는다. 이 概念은 다음에 보편타당성과 必然性이라는 두 개의 學的 基準을 준다. <必然성과 原理的인 보편성으로>, 經驗主義의 經驗이 보증하는 相對的 普遍性的, 任意的 上昇은 哲學的으로 許容될 수 없다. 原理的인 보편성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結果를 얻기 위해서는, 經驗적 개별사실이 同一한 條件下에 있는 모든 사실들에 대한 모범적인 것으로서 採擇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制約들의 統制는 制約들의 構成안에, 내지는 制約연관의 構成안에, 다시 말하면 方法的인 構成으로 投入하는데서 함께 定立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投入으로써 先天的인 것의 方法的 價値가 표지되고 있다.

個別的인 先天的 契機를 學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學을 그의 소박한 現實性으로부터 可能性으로⁸⁾ 전환시키기 이전에 經驗의 문제는 明白한 물음으로서 그의 精密化를 經驗한다. 왜냐하면 先天的인 것이 종합적인 것의 제기와 연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名目的 定義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理性批判의 緒論이 分析的 판단

4) S. 136.

5) S. 137.

6) S. 137.

7) S. 139.

8) S. 186.

과 종합적 판단사이의 구별을 전개한다. 批判的 思想過程에서 이 구별이 Leibniz 적 과학—이것은 空間을 抽象物(Abstraktum)⁹⁾로서, 즉 單子들에 관한 理性認識¹⁰⁾에 의존하는 第二次的 契機로 간주한다. —에 대한 空間論의(이미 就職論文 1970에서 引導된) 論爭에 關係해서 重要하게 된다. 이 空間論의 論爭에 직면해서 數學의 事實(이 學의 確實性은, Leibniz가 正當하다면, 自然法則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이, 數學의 確實性을 보증하는 法廷은 전혀 개념들의 彼岸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法廷은 무엇인가? 數學에 대한 이 法廷의 의미가 어떻게 正當化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물론 다음의 물음이다. 즉 어떻게 數學에서 先天的 綜合判斷이 가능한가? 이 물음은 先驗的 感性論에서 數學이 의존하는 制約들의 領域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 領域은 단지 數學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이다. 이 영역은 數學的 自然科學의 道具로서만 哲學的 關心에 해당하고, 그리고 先天的 綜合判斷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전체 영역에 관해서 “理性批判의 근본 물음”¹¹⁾으로서 설정되고 있다.

과학에 대한 先天的인 것의 의미는 물론 과학자체의 理念으로부터 드러난다. 즉 이 思想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사적 考慮에서 數學的 自然科學의 一定한 상황을 例로 든다. 그러나 數學的 自然科學(그의 부속학문과 함께)의 意味로서 經驗의 定礎는 우선은 이런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수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로 된 영역의 특수 학과들이 定礎의 대상들을 준다. 이 定礎는 특수한 오직 이 學科들에 關係해서 특유한 기초로 이끌어진다. 이 哲學者는 각己의 이 學科들에서 그 基礎들에 봉착했다. 즉 個別科學들의 ‘要請’ ‘原則’ 들에 봉착했다. 이들안에서 세 개의 方向에 대한 하나의 조망이 열린다. 즉 原則의 思想안에는 原則안에서 기초된 것에 대한, 그러므로 각 科學에 대한 지시가 깔려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公理의 개념안에 놓여 있다. 個別科學의 마지막(궁극적)前提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個別科學의 궁극적 前提에 關係해서 그 學의 代表者는 그 領域의 限界를 저버리지 않고서는, 묻고 넘어갈 수 없다. 결국 原則에서 先天的 要素들이 開示되고, 이 先天的 要素들은 각己의 科學에서는 어떤 궁극적인 命題들을 통해서 對象들안으로 投入된다. 이러한 命題를 위해서는 要請이라는 表現이 보통이다.

「理性批判」은 방금 표지한 상이한 方向들을 하나의 동일한 思想過程에서 추구한다. 原則안에 窺혀 있는 先天的 要素들 안에서 理性批判은, 그들 전체가 經驗을 이루는, 그런 構成要因들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이와 함께 그러나 결국 한 영역이 있고, 이 영역에 상이한 構成的 契機들이 符合한다. 즉 數學, 物理學, 自然史가 그 영역에 부합한다. 또 複合體에 속할 수 있는 다른 학과들은, 그들이 이 領域에 속하는 限, 철학적 문제에 속한다. 이들 학과들의 특수제약들 안에는 그러나 언제나 經驗이 있고, 이 經驗은 제약되고 근

9) S.153.

10) S.153.

11) S.153.

거지워진다. 個別的 制約들은 그러므로 경험의 제약을 위해 단적으로 서로 연관된다. 경험은 이제 물론 특수한 방식으로 일정한 限界 지워진 對象領域으로 制限될 必要가 없다. 마치 특수 과학들의 기초와 전제들이 이러하듯이 따라서 경험일반의 한 制約에 관해서, 경험의 최고의 制約에 관해서, 또는 경험의 최고의 原則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최상의 原則의 承認에 모든 低次的 原則들의 타당성이 의존하고, 이 低次的 原則들 안에서 個別的인 학과들이 특수화한다. 이 최고 原則을 넘어서는 아무런 必然性도 없다. 이 必然性은 결국은 다음의 思想안에, 즉 과학으로서, 數學的 自然科學으로서 특징지워지는 우리의 의식의 동일한 영역안에서 우리가 必然性을 承認하려고 의욕한다¹²⁾는 思想에 의거한다. 경험의 영역안에서는 한 법칙이 지배해야 한다.¹³⁾ 더우기 全體經驗을 위한 한 법칙이 있어야 하고, 이 全體經驗의 가능성은 이 義務와 함께 存立하며 주어진다. 이 법칙이 그러므로 경험의 가능성의 原則으로서, 그러나 또 경험의 통일의 原則으로서 要求될 수 있다. 통일의 이념은 이리하여 다른 나머지의 경험의 制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미를 얻는다. 다른 나머지의 경험제약들은, 이들이 최상의 법칙을 특수對象의 영역에서 타당하게 하려고 하는 限에서만 그들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제다가 이 理念은 최고 원칙의 보다 상세한 規定을 허용한다. 즉 統一의 契機안에는 意識이라는 法廷에 대한 한 지시가 주어져 있다. “質料는 아무 통일도 가지지 않으며 聚合으로 머문다. 통일은 의식에 적합하다.”¹⁴⁾ 그래서 최고원칙은 이 통일의 契機를 세우는 法廷에 따라 命名될 수 있다. 즉 意識의 統一의 原則으로서, 또는 (Leibniz의 自己意識의 規定에 의한다면) 統覺의 統一의 原則으로서 命名될 수 있다. 물론 Apperzeption (統覺)이라는 말로써 여기에 아무런 活動의이고 現實의인 自己意識이 표지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들로부터 研究者가 自然에 물음을 제출하는 바, 모든 觀點들의 최고의 統一이다. 더우기 上述한 指示에 따른다면, 先天的인 것이 自然의 사물들안에 投入하는 바 그 制約들의 최고의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은 또 綜合的 統覺으로서의 統覺이다. 다시 말해 통각의 통일이 綜合적 통일로서 言表된다. 왜냐하면 說明判斷의 단지 分析的 統一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의 構成의 方法과 手段의 총괄개념은 綜合判斷을 겨냥한다.

그러나 綜合的 統覺은 또 事物을 비로소 경험의 대상으로 만든다. 경험의 대상은 단순한 사물이고 단순한 개념과 똑같이 무의미하고 무관심하다. 즉 사물이 경험에 하나의 결과를 낳아야 하고, 다시 말하면 必然의이고 보편타당적인 認識을 낳아야 하는 限, 必然的 普遍的 認識은 先天的인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先天的인 것은 自然科學과 함께 동시에 自然科學的 對象性을 構成한다. 단순한 思惟와 認識과의 사이에는 區別이 存立하는데 結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對象性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이 결과로 최고의 원칙은 다음과

12) S. 185.

13) S. 185.

14) S. 188.

같다. “경험일반의 가능성의 제약은 同時に 경험의 對象의 가능성의 제약이다. 그리고 그 까닭으로 先天的 綜合判斷안에서 客觀的 妥當性을 가진다.”¹⁵⁾

이로써 統一의 思想의 事象의 의미와 동시에 方法的의 의미가 原則的으로 뚜렷해졌다. 이 思想은 部分課題의 해결에 있어서 경험의 定礎에 따르는 것을 禁한다. 部分課題들의 成果들은, 그들이 서로 관계없이 얻어진 後에, 서로 나란히 接合된다. 이러한 서로 分離된 部分研究들은 批判的 기초에는 적당치 않다. 경험의 研究를 위해 必然的인 各 研究는 그들의 특별과제와 특수한 의미에 있어서 上位의 全體課題로부터만 이해된다. 上位의 全體課題는 그의 義務의 表現을 최상의 原則에서 발견한다. Kant가 相異한 科學들을 그 안에서 檢證하는 바, 個別的 原理들은 최고원칙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先天的인 것의 科學의 標準들은 따라서 위에서 말한 특수원칙들의 質料로서만 추정된다. 특수원칙들 — 그 부분들에서의 各 原則 — 은 문제의 해결을 수행한다. 그리고 부분들의 “核心”은¹⁶⁾ 최고의 原則안에 있다.

그러한 質料의 영역은 그러나 더욱더 넓은 關心을 고려한다. 즉 認識의 體系를 고려한다. 인식체계의 理念은 실로 先驗的 方法에게 規範과 原理를 지정한다. 즉 그러한 意識要素는 인식하는 의식의 要素로서 妥當해야 하며, 이 인식하는 의식의 요소들은 과학의 사실들을 產出하기에 足했다¹⁷⁾는 것을 지시한다. 경험의 사실인에 제출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 다음의 點에서 存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數學的 自然科學안에 주어진 “경험의 內容을 — 이 內容은 Hume에게는 한 先天的 所有로서 제공된 것일 수 있었다. — 그 가능성에 따라 설명하는 것안에 存立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⁸⁾ 이 해결은 그러나 이제 그 자체가 다시 認識하는 의식의 要素로서의 意識要素의 의미에 대해 標準으로서 評價되어야 한다. 이로써 비로소 Kant가 “경험이라는 脅迫語에서 파악했던”¹⁹⁾ 그 영역이 哲學的으로 認識으로서 증명된다. 이것은 그러나 이미 그 先天的인 要素의 영역의 始作에 대해 중요하다. 즉 “認識이 化學的 素材가 아니라, 精神的 形成物이요, 事件”²⁰⁾인 限, 출발지점은 역시 그러한 形成物과 事件들에서 取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여기에 한 誤解가 위험한다. 意識要素자체를 밝혀 내고 마찬가지로 의식내에서의 그 요소들의 位置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될 先研究는 心理學이 아니다. 의식요소는 오직 인식하는 의식을 위해서만 論議된다. 이 — 心理學的인 물음의 上位의 — 觀點이 또 要素(E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心理學者는, 적어도 그가 論理的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가 그의 課題를 위해 더이상 나누어가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인식의 어떠한 궁극적 形成物도 인정하지 않

15) S. 190 (B197).

16) S. 186.

17) S. S. 108.

18) S. 5195.

19) S. 93.

20) S. 97 f.

는다.”²¹⁾ 形而上學的 해명이 유발하는 關心事만이 바로, 모든 心理學的인 연구가 이바지하는 그 關心事와 同一하지 않다. 精神的 形成物과 事件이 우리의 着想들의 盲目的인 유희(이것에 대해서는 心理學的의 發展史的 方法이 明白히 公平할 수 있다.) 보다는 더 이상의 것이라는 것, 이것은 물론 이미 價値規定의 思想을 앞질러 파악한다. 價値規定에 대한 考慮가 비로소 心理學的의 分析에 統一을 命할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觀點으로부터 “先研究(Voruntersuchung)가 행해진다.”²²⁾ 그런데 이 觀點을 計劃된 價値規定이 지정한다. 여기서도 물론, 價値觀點은 매우 순수하게 心理學的인 研究에 있어서도 그의 權利를 얻고 있고, 이것은 Descartes에서도 지적된 것이라는 것이 注意되어야 한다. Descartes는 方法論者로서는 模寫說과 싸웠고 心理學者로서도 明白히 모사설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感覺에서의 事物의 印象”을²³⁾ 그가 승인함으로써 宿命的인 形而上學的 偏見에 外觀上 不可避한 心理學的인 非學問性으로 떨어졌다. Kant에 의해 豫審(Voruntersuchung)이라고 하는 것은 分明히 先驗的 研究로 合流한다. 先驗的 研究가 學問構成的인 것으로서 立證해야 할 契機들은 形而上學的 豫審에 의해서 意識要素로서 밝혀져 있어야 한다. 의식요소들의 構成性에 의거해서 그리고 나서, 이 의식요소들은 인식하는 의식의 要素로서 요구된다. Cohen은 그러므로 先驗的인 것의 性格을 분명히 그렇게 표제가 쓰인 부분들로 制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계기가 全批判的 契機의 지도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²⁴⁾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本案의 ‘先驗的’이라고 표지된 節들에, 때때로 특수방법적 고찰을 바치고 있다. 이 고찰에 의하면, 의식의 方法的 傾向의 事實의 分析에서 이런 의식의 方法的 傾向의 事實이 인식을 產出하고 또 산출하는 限, 그 方法的 傾向의 內的 구별이 제공되고 있다.²⁵⁾ “Tatsachen(사실)”이라는 말로써 여기서는 要素(Elemente)가 의미되고 있다. 이 要素의 先天性的 證명이 形而上學的 海명의 일이다. 본래의 批判的 관심은 그러나(또, 이 소극적 形式化에서 극히 예리한 精確性에서 가치문제가 박혀들어 있다.) 그 극히 예리한 精確性속에 드러난 가치문제를 要求한다. “概念은 바로 表象속으로 해소되거나 몰락해서는 안된다.”²⁶⁾ 이 말은 正當하다. 개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先天的으로 表示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따라서 문제되고 있는 對象에 대한 先天的인 것의 關係이다. 就職論文에서 Kant는 이 關係를 精神統찰의 법칙(lexmentiinsita)으로서의 要素의 解釋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치는 견고하지 않다. 물론 비판도 처음에 內的인 것이 外的인 것의 客觀性을 보장하도

21) S.98.

22) S.370.

23) S.100.

24) S. S. 108.

25) S.102.

26) S.491.

록 한다. 그러나 오직 더 앞으로 계속해서 內的인 것의 客觀的 妥當性을 問題視하기 위해서이다.²⁷⁾ 이처럼 그의 正當한 權利에 도달하는 비판적 必然性이 ‘理性批判’의 모든 부분들에서(특히 初版에서) 승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先天的인 것의 의미는 다음의 곳에서, 즉 個別的인 연구가 직접적으로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支配的인 물음에 의해서 引導되고 있는 곳에서, 심화되고, 최고원칙의 對象的 意味가 완전히 타당하게 되는 方式으로 深化된다.²⁸⁾

경험의 사실은 KRV (이하에서는 ‘순수이성비판’을 ‘KRV’로 표시함)에서 그 사실안에 있는 實現可能한 이론적 가치를 고려해서 問題視되고 再檢된다. 즉 이 철학자가 原則들위에 경험이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 原則들의 경험자체의 內部에서의 法的 根據에 따라서 不問에 붙여질 수 있는, 이런 原則들을 問題로 함으로써, 再檢된다. 이것은 다음의 방식으로, 즉 Kant의 原則들안에 포함되어 있는 先天的 계기들을 原則들이 그때 그때의 學問의 對象들안에다 投入한다. 그들의 學問構成的 意味를 목표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再檢된다. 이 意味가 보증되고 난 후에 비판으로 부터는, 先天的으로(im Apriori) 正當하다고 증명된 學의 前提들로부터 그 學을 再構成할 課題가 생긴다. 그런데 경험을 先天的 契機로 환원하는 것은 批判의 처음에 이미 수행되고 있다. 이 환원자체는 직접적으로 正當性的의 증명으로써 시작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 먼저 경험의 定礎에서 存立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經驗의 構成에서 存立한다. 그래서 Cohen은 이 還元的 敘述方式을 綜合的인 것으로서 표지한다.²⁹⁾

Alois Riehl도 이 用語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이 用語를 Kant의 方法的 표지를 위해서 썼다. 綜合的인 思想과 不可分的인 통일의 思想으로서, Riehl에 의하면, 先天的 綜合判斷의 하나의 中心的인 문제가 目標로 되고 있었다. 이 先天的 綜合的인 問題의 해결을 위해, 종합되어야 할 계기들은 그 問題자체, 즉 全批判的인 作業에 대한 前提的인 方式으로부터 발전된 순수直觀과 概念이다. 方法問題와 관계하는 것 全部 또는 거의 全部는 “綜合的”이라는 規定으로서 이야기되었다. 언제나 그러했고 때때로는 또 分析的인 계기도 인용되었다. 이에 反해 Cohen에 의하면 分析的인 계기와 綜合적인 계기는 全적으로 理性비판의 敘述方式을 표지한다. 그러나 方法에 관해서는 이 특징들에 의해서는 아무런 本質的인 것도 言表되지 않는다. Cohen의 方法論的인 附說에 비한다면 Riehl은 方法的인 물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本質的인 것도 주지 않는다.

分析的이나 아니면 綜合적이나라는 물음이 그러나 批判的인 물음에 대해 그와 같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Cohen에 의하면 바로 또 비판적 思想의 敘述에 관해서는 두 選言的인 契機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또 方法論的으로 하나의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험의 통일의 原理는 認識의 體系에 있어서 하나의 빈틈없이 연결된, 그러나 終結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妥當하기 때문이다. 이 통일의 몫을 가지는

27) S.S. 386.

28) S.S. 329f.

29) S.S. 523.

것에 의거해서 비로소 先天的인 個別的 계기들은 인식의 構成要因으로 된다. 認識안에는 완전히 Leibniz의 의미로 分析의 綜合이 전제되고 있다. 이 종합은 물론 綜合的 敘述方式과는 完全히 다른 어떤 것이다. 이 종합적 敘述方式에 관해서는 哲學者가 바로 分析的 敘述方式에 관해서와 같이 判斷에 따라 接合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分析의 종합에서는 경험의 최고원칙이 作用하고 있고, 이 경험의 최고원칙안에는, 그 分離된 制約들의 綜合이 回復되는 固有하고 獨自의 樣式의 先驗的 制約이 定立되고 있다.³⁰⁾ 왜냐하면 制約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이 制約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哲學的 考察의 범위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이것의 構成을 위해서는 充分하지 않기 때문이다.

Ⅲ. 理性批判의 조직과 構成

마지막 해명들이 비판적 계획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물음에 결정적인 무게를 준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동시에 綜合的인 統一의 個別的 分節들의 등급의 물음이며, 또 課題全體에 대한 개별적 分節들의 寄與의 물음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그 個別的 分肢들이 (Prolegomena에서 처럼) 分析의 方式으로 이 全體로부터 展開되고 그리고 그들의 權利要求를 이미 綜合的 方式으로 確保된 경험의 全體로부터 導出하는지 어떤지, 또는 경험이 綜合的인 方式으로 個別的인 分節들안에서 構成되고 그 個別的 分節들안에서 이 方式의 처음에 例로 들었던 權利主張이 確認되는지 어떤지 하는 것은 無關하다.

經驗은 認識의 한 部分영역이고, 그리고 이론 部分영역으로서 學問의 基準인 普遍妥當性和 必然性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先天的인 것에 의해서 특징지워지고 있다. 先天的인 것의 權利증명에 있어서 그러므로 問題의 해결이 결과로서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경험의 理論안에 認識體系의 통일인 理念이 있고, 그리고 認識體系의 内部에 경험의 統一의 理念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경험을 비로소 인식으로 만드는 先天的인 계기들은 대단히 상이한 종류이다. 즉 個別的 學科들의 區別은 결국은 그들의 對象들의 相異性에 의존하지 않는다. 對象들도 先天的인 것을 통해서 비로소 對象的인 被規定性에 도달한다. 이 先天的인 것 안에는 또 따라서 그의 特殊의 形式들에 어울리게 個別的 科學들이 그들의 方法的 內容의 特殊性에 根據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험을 구성하는 先天的인 것은 경험을 形成하는 個別的 學科들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안된다. Kant는 數學의 根底에 깔린 前提들의 試驗을 自然科學과는 分離해서¹⁾ 시작한다. 數學의 기초는 公理들안에 놓여 있고, 이 公理들의 根本概念으로서 이미 古代人들은 空間과 時間을 인식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점에서 古代人을 따르는 Galilei, Kepler와 Newton에 관련해서 Kant는 先驗的 感性論에서 空間과 時間을 批判的 價值規定의 對象으로 삼았다. 이러한 規定에 관한 Cohen의 評價는 주로 空間의 解明에 관계한다. 時間은 內

30) S. 487.

1) S. 111.

感으로서 그러한 體系的 意味를 가진다. 그래서 時間에 대해 先驗的 感性論의 詳論은 公
 平하지 않다는 것이다. 經驗의 理論에서 時間은 그의 解明을 範疇論의 해석에 關係해서
 비로소 발견한다. Euklid의 公理에 대한 空間의 關係는 그 밖에 보다 正確한 아무런 規
 定도 必要하지 않는다. 認識論的 視點과 幾何學的인 觀點의 區別이 인식하게 하는 것은,
 幾何學에는 그의 公理를 公式化하는 自由가 속하고, 認識論에는 幾何學的 公理가 前提하
 는 인식계약들의 어떤 結合이든 시험할 權利가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幾何學的으로 法廷
 의 모든 固有한 法에도 不拘하고 認識論的 法定의 側으로부터 “公理一般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추구된다. 왜냐하면 空間과 時間의 先天性은, “만일에 時間과
 空間이 이 公理들의 根底에 놓여있다고 해서 公理一般이 증명해서는 안된다는가, 증명할
 수 없다”²⁾면, 전혀 아무런 意義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先天的 契機들이 그들의
 對象的 意味를 宣言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따라서 科學에 대한 그들의 意味를 諸原則에
 서 宣言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우선 形而上學的인 豫審은 그 契機들을 의식의 요소로서, 즉 根源的인 것으로서 내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根源的”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價值規定의 心理學的인 물음
 과 哲學的인 예비적 물음과의 混同의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形而上學的 해명의 認識批判的 의미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어떻게 학문의 前提들이 인식하는 의식의 根本특징으로서 타당하게 되는가?³⁾
 더우기 이 때문에 “심리학적인 分析의 權利를 침해하지 않고서⁴⁾ 이렇게 요구된 학문적
 인 기초의 分化에 대해 表象이라는 用語”의 導入과 그리고 이 用語와 “意識의 質料,” 즉
 感情과 感覺과의 對照가 소용된다. 感情과 感覺에 대조해서 Cohen은 “의식의 복합현상
 感覺들의 結合⁵⁾”을 표지한다. 이러한 結合에 의거해서 意識안에서 內的 감각이 내적 사
 물과 외적 사물로 客觀化된다.

空間과 時間은 그러나 Kant에 의해서 表象들의 類型과 形態化의 手段으로서, 表象들의
 形成과 固定化의 道具로서,⁶⁾ 表象들의 客觀化의 段階로서 思惟된다.⁷⁾ 따라서 空間과 時間은
 그 자체가 表象이 아니고 더군다나 感覺이 아니다. 비록 아무리 時空이 “이들의 結合안
 에서 表象들의 心理學的 特性이 存立하는 바, 要素로서”⁸⁾의 궁극적인 것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勿論 時空의 特性은 이때에 이미 心理學的인 것이 아니다. 만일
 空間이 “여러 감각들의 合同作用에 의해서 비로소 생겨난다”면, 어떠한 單一감각도 “觸

2) S. 524.

3) S. 108.

4) S. 113.

5) S. 116.

6) S. 116.

7) S. 117.

8) S. 117.

覺만으로는, 또는 視覺만으로는, 또는 근육감각만으로는 空間을 경과시키지 못한다면,⁹⁾ 이것은 어떤 感覺도 空間을 包含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生産作用(Erzeugen)”의 超心理學的인 性格이 明白하다. 생산된 契機들보다는 더욱 생산하는 계기들에게 비로소 認識안에서, 또 인식을 위해서 하나의 기능을 준다. 물론 結果, 產物, 生産物로서의 이 空間의 표지는 오직 心理學的인 制約들의 實現에서 “意識의 한 새로운 內容”¹⁰⁾이 등단한다면! 그러나 이 새로움이 바로 根源性이고, 이 根源性에 비해 感覺方式들의 制約은 단지 준비적인 기능만을 가진다.

感覺들을 사물들로 客觀化함에 있어서 그 類型이나 段階들의 積極的 수행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일들이 現存한다는 것을 Kant는 바른 손과 왼손의 區別에 대한 指示下에서 이미 1768년에 (“空間안의 方向들의 區別에 관한 최초의 根據에 관하여”라는) 취직논문은 이러한 일의 原理로서 感性을 증명하고, 그리고 質料과 形式과의 區別에서의 原理의 意味를 설명하고, 質料과 形式의 구별에는 感覺的인 認識과 敏感한 인식의 區別, 感覺과 幾何學的의 區別이 대응한다. 感覺的인 認識은 따라서 철저하게 受動的이다. 이에 대해 敏感한 認識의 “순수” 직관에서는 一種의 根源的 活動性이 明示된다. 그리고 이 活動性에서 形式의 의미가 보여진다.¹¹⁾ 취직論文的의 이 思想들이 理性批判을 통해 그 全體의 積極的 內容에 따라 形而上學的의 解明에서 포착된다. 물론 先驗的 解明의 成果가 이미 1770년에 발표되고 示唆되었던 限, 批判자체는 그 成果를 引受해서는 안된다. 즉 1770년에는 아직 ‘精神통찰’의 법칙의 思想이 그러한 認識의 法的 根據를 주었다. 그러나 批判的인 價値規定을 위해서는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말하자면 主觀的인이다. 비록 보편적으로 法則으로서 空間을 표지한다. 할지라도, 空間이 객관들의 세계에 대해, 絕對 空間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方法的으로 다시 새로 근거가 주어져야 했다.¹²⁾ 그리고 이를 위해서 Kant는 先驗的 方法을 必要로 했다. 그러나 感覺主義와 경험주의를 拒否하는(形而上學的의 解明에서의) 空間의 第一命題의 消極的인 公式化에 있어서는 就職論文的의 成果가 타당하게 된다. 空間은 “外的 經驗에서 끌어내어진 아무런 經驗적 개념”이¹³⁾ 아니다. 소극적 파악은 주의 할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적극적 轉回를 定礎와 解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經驗적인 성격의 부정은 동시에 先天性의 承認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否定은 空間에게 外的 經驗의 연관에서 先天性에 대해서 感覺을 요구한다. 感覺들이 外的 사물들에 關係되는 것을 위해서, 外部 사물들 일반이 表象되는 것 자체를 위해서, 空間이 전제되고 있다. 오직 그러한 限에서만 空間의 表象에 관해서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고, 공간의 表象이

9) S. 256.

10) S. 266.

11) S. 123.

12) S. 225.

13) S. 129 (B38).

경험의 근저에 놓여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넘어서 空間의 根源性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先天的인 것이 끌어 당겨진다. 여기서 形而上學的 海明에서 그 先天的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形而上學的 解明은 솔직히 제자리에 있지 않다. 오직 준비적인 기능을 가질 뿐이다. 이에 相應해서 先天的인 것의 形而上學的 海明의 規定은 최종적인 것일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規定이 그 준비적인 기능이라는 의미에서 先天的인 것의 先驗的 의미에 定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색되는 先行的인 의미는 科學에서의 방법적 使用가치의 의미이다. 경험의 ‘投入’과 構成이라는 의미에서 先天的인 것은 感性의 原理로서의 空間과 時間에 적용될 수 있다. 空間과 時間의 原理的 의미는 의식내부에서의 分離의 節次를 통해서 確保된다. 이 절차는 맨처음에 오성이 개념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을 度外視하고, 그 다음에 感覺에 속하는 것도 도와서한다. 남는 것은 現象의 단순한 形式, 즉 先天的 感性의 寄與가 남는다. 이 기여는 “表象”으로써 導入된다. 그래서 제 2의 命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空間은 하나의 先天的인 必然的인 表象이고 이 表象은 모든 外的인 直觀의 근저에 놓여 있다.¹⁴⁾ 그러므로 여기서 공간은 벌써 대상들의 상태의 전제로서만이 아니라, 이 대상들자체의 制約으로서 요구되고, 더우기 制約으로서이고 결코 “부가적인 規定”으로서가 아니다. 즉 “우리가 이 制約을 事物들안에 놓는 것”¹⁵⁾에 이 制約의 必然性이 있다.

이 點에서 비로소 Cohen에 의하면 경험의 문제가, 엄밀하게 先天的 종합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으로 제시되고 그리고 中心的 문제로서 이해된다. 先驗的 感性論의 시초들은, 이들이 先天的 계기를 의식의 요소로서 증명함으로써, 그것에 의거해서 가능성의 물음이 해결되는 바 質料를 제공한다. 引用된 제 2명제의 결론에서 空間과 時間이 순수직관으로서 그리고 따라서 그러한 質料로서 규정된다. 모든 思惟는, 직관에서 사물들이 주어지는 限, 직관을 목표로한다. 사물이 직관됨으로써만 사물은 주어저있다. 이런 方式으로 制約된 주어지는 것이 批判의 用語로는 心情的 촉발이라고 한다. 주관에 대한 촉발하는 形成物의 작용이 감각이다. 그러나 감각은 대상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경험적 직관을 세운다. 순수 직관은 다른 계기로서 承認된다. 그안에서 감각에 속하는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 그러한 表象은 순수하다. 순수직관의 내용은, 철학에서 “제 1 성질로서 전부터 표지되고 있는데,¹⁶⁾ 先天的인 海明을 위해 이미 실행된 抽象하는 分離化에서 생긴다. 이 分離化가 물체의 표상에서 延長과 形態를 남겨둔다. “이 순수직관이, Kant가 제 1審에서 인식의 그 모색되는 先天性을 그 위에 根據시키는 바의 기반이다.”¹⁷⁾ 先天的인 사상은 이제 綜合的

14) S. 140.

15) S. 140.

16) S. 148.

17) S. 149.

判斷의 문제와 결부된다. “先天的 綜合判斷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理性 비판의 根本問題이다.”¹⁸⁾ 이러한 命題가 可能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數學에서 그런 命題들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나 수학은 그의 概念을 構成하는, 즉 직관안에서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概念들로부터 되고 있는 철학적 理性認識은 이런 構成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로 철학적 理性批判은 직관을 必要로 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理性批判에는 직관에 대한 관련이 허용되는가? 이런 것은 가능성의 물음에 대한 답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이 가능성의 물음의 수행은 이제 경험의 理論에 결부되고 보충적인 연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同一한 學的인 의도의 다른 側面으로서 결부한다.

제 2 命題는 空間表象의 必然性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경험의 内部에서, 空間의 독립성과 根源性을 推論한다.¹⁹⁾ 그러나 공간표상의 그 必然성은 우선은 단지 의식의 사실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Herbart의 오해와 같은 것이 나올 위험이 있다. Herbart는 공간을 “오직 論理的으로”²⁰⁾ 물체들과 사건들의 現實性的의 必須條件으로서 파악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해서 공간표상의 必然性을 해석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Kant의 공간론의 形而上學的 의미”²¹⁾가 모순된다. 공간은 특별한 의식의 양식(Bewusstseinsart)이고, 그래서 現實的인 印象들과 知覺들로부터 얻은 抽象物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形而上學的 의미에 의거해서 공간은 “종합적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또 數學의 기초로서²²⁾ 소용된다. 공간의 必然성에 대한 통찰과 그안에 包含되고 있는 上述한 誤解의 校訂은 동시에 論證的 認識과 直觀的 인식의 구별을 밝힌다. 그 根據를 “外的 知覺의 現實性안에”²³⁾ 가지는 바 공간표상의 한 必然성은 形而上學的 解明에서 認定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간에 관한 제 3의 命題에 의하면, “空間은 論證的 概念이 아니며 또는 흔히 말하듯이, 사물들 一般의 관계에 관한 一般的 概念이 아니라, 하나의 순수직관이다.”²⁴⁾

空間은 아무런 論證的 概念이 아니다. 그러한 論證的 概念으로서의 공간은, 概念의 綜合의 통일에 있어서 經驗的 知覺들의 數多性으로부터 생겨야 할 것이다. 사실적으로 공간은 공간적인 形成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形性物들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形成物들의 여러 공간안에 주어진 것으로서 사유된다. 왜냐하면 “여러 공간이 공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空間의 部分들일 뿐이다.”²⁵⁾ 순수직관으로서의 공간표상의

18) S. 156.

19) S. 160.

20) S. 162.

21) S. 162.

22) S. 163.

23) S. 160.

24) S. 163 (B 39)

25) S. 164.

성격으로부터 이제, 明白한 확실성을 가지는 모든 기하학적인 原則들을 “構成으로부터 產出하는 先天的인 命題들의 모범적 例로서²⁶⁾” 導出할 가능성이 分明해진다. “先天的 必然的 表象” (제 2 명제 참조)은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空間表象의 직관적 성질이 비로소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空間표상에게 先天的인 것의 要求를 그렇게 確證하면서 普遍妥當성과 必然성을 준다. 이 직관적 성질이 물론 순수표상에 적합한 限.

제 3 命題는 제 4의 명제에 의해서 確證되고 보충된다. 제 4 명제에 의하면 “공간은 한 無限한 주어진 量으로서 表象된다.”²⁷⁾ 이것 또한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즉 객관적인 것에서 (二律背反에 모순되게) “gegeben”과 “unendlich”라는 두 개념의 한 結合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러나 미심쩍게 여기는 轉回는 단지 “직관이 證明을 위한 連結로서 만”²⁸⁾ 쓰인다. 직관의 證明을 위해서는 물론 시간에 관한 이에 相應하는 公式化가 더욱 잘 어울린다. 時間의 無限성에 의하면 여기서 오직, 모든 일정한 時間量은 하나의 根底에 놓인 時間의 制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直觀의 證明은 제 4 명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즉 물론 모든 개념은, 가능적 相異한 表象들의 無限한 量을 自己아래 包含하는, 그러한 表象으로서 사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에 반해 공간은 表象들의 무한한 量을 자기안에 包含한다는 것, 그리고 兩가능들이 엄밀히 구별된다는 것이다. 즉 공간의 모든 부분들이 무한히 동시에 있는 限, 공간자신은 上述한 방식으로 사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공간은 직관이고 概念이 아니다. 이 구별적 특징화가 제 4 명제의 本來的 成果를 形成한다. 그러므로 제 3 명제에 반해 이 제 4 명제에는 한 確證的인 모든 경우에 보충적인 기능이 속한다.

2. 先驗的 研究는 이미 形而上學的 해명이 타당했던, 그 同一한 의식요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한 새로운 물음의 觀點下에서는, 또 방법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대상으로 삼는다. “對象에 관한 한 의식, 따라서 한 綜合的 認識이 先天的 價値를 가지고 가능한 限, 이 認識만이 先驗的이다”²⁷⁾ 先天的인 것의 必然성은 이로써 비로소 그의 可能性의 證明에 있어서 그의 完全한 무게를 얻는다. 그래서 물음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數學이 즉 “공간에 관한 先天的인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³⁰⁾ 時間에 관해서는 先天的인 認識이 어떠한가? 時間도 數學에 속한다. 時間안에 數論이 根據되는 限, 空間안에 기하학이 根據하듯이³¹⁾ 더우기 여기서 可能性은 論理學的 意味로 無矛盾性을 말하지 않는다. 물음은 한

26) S. 165.

27) S. 167 (B39)

28) S. 169

29) S. 179

30) S. 181

法廷에 해당하고, 이 法廷이 積極의 의미의 종합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물음의 背景앞에서 또한 論證의 認識과 直觀의 認識의 以前의 구별의 완전한 의미가 또한 밝혀진다. 이 區別이 물론 어떠한 心理學的인 區別을 특징지우지 않았고, 도리어 科學方法的 사태를 한 思想過程의 테두리 內에서 특징지운다. 그 思想過程안에서는 또 區別肢의 의식 根源性이 다루어져야 했고, 그리고 이 區別肢들의 學問構成的 의미는 벌써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제공된 部分研究는 물론 다시 必然性을 고려해 넣지 않으면 안된다. 이 考慮에 따라 批判은 모든 부분연구들의 成果들을 서로 관련지우고, 그래서 모든 특수한 인식비판적 가치규정에 대한 경험의 표준수여적 통일의 理念을 만족시킨다. 이 경험의 통일 理念안에서 모든 部分연구의 대상들이 固定되어야 한다. 이 理念자체는 그러나 마지막 想定과 함께 存立하고 또 나타난다. 이 마지막 想定에 관해서는 철학자도 그것을 넘어서 추구할 수는 없다. 이것은 科學으로서 특징지워지는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 있어서 必至일 것이다.

이로부터 공간의 先驗的 解明의 기초의 윤곽이 그려진다. 즉 공간의 先驗的 해명은, “空間이 순수직관으로서 의식의 통일의 根本法則에 대해 주는, 그 寄與를 規定³³⁾” 해야 한다. 이것은 時間 “內感”에 있어서도 상응하고, Cohen은 그러나 時間 즉 內感에 대해서는 原則論과 연관해서 버로소 關與한다. 先驗的 解明의 이 批判的 課題는 注意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명자체가 첫눈에 心理學的인 느낌을 일으키는 議論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인식작용의 제약들이 心理的 形成物인 限, “의식의 통일의 최고의 원칙에 대한”³⁴⁾ 그 制約들의 寄與를 規定함에 있어서 心理學的 言語를 사용하는 것은 不可避하다. 그래서 더 정확한 파악이 추천된다. 공간의 先驗的 해명이 실현해야 할 증명은 다음의 것이다. “空間概念의 解明으로부터 幾何學의 확실성이 洞察될 수 있고, 따라서 空間이 直觀으로서 게다가 순수직관으로서 認識된다는 것³⁴⁾”의 증명이다. 이 形式化에 있어서 공간문제에 대한 適用에, Cohen이 다른 연관에서 先驗的 方法의 “原理와 規範”으로서 특징지운 것을 삽입한다. 意識要素인 공간은 形以上學的 해명을 통한 그의 規定에 의거해서 幾何學의 必然性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로 洞察할 수 있게 해야한다. 形而上學的 해명은 공간과 時間에서 물론 數學의 根本 概念을 探求했다. 비록 數學의 意識根源性에 관해서 뿐이지만, 이제 공간의 規定으로부터 數學의 必然性이 그의 가능성에서 드러난다. 이리하여 공간은 인식하는 의식의 要素로서 증명하고 있다.

이 證明을 위해서 Kant는 순수직관을 문제로 삼았다. 우리 마음에는 한 外的 直觀이 內在하고 外的 客觀들의 先天的 개념들을 준다. 이 內在는 어떻게 思惟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음은 말한다. 즉 心理學的인 關心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으로는 數學의

31) S. S. 182.

32) S. 193.

33) S. 191.

定礎의 關心에서이고,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경험의 理論의 關心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의 理論의 關心에 이 定礎가 도움이 된다. 外的 直觀이 오직 主觀 안에서 그의 자리를 가진다면, 外的 直觀은 內的일 수 있다고 答은 말한다. 더우기 主觀은 客觀들에 의해 촉발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객관의 직접적인 表象을, 즉 直觀을 얻는 主觀의 단순한 상태로서, 따라서 外的 感官一般의 形式으로서만,³⁵⁾ 主觀에서 그의 자리를 가진다.

外感의 形式으로서의 空間의 思想은 Kant 후에 哲學에서 重大한 이해와 轉位를 겪었다. 결국 단적으로 不可缺한 경험의 통일의 原理가 應當히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個別的인 先天的인 계기에 對照해서 보나 高次의 統一의 기능이 통찰되지 않았다. 先天的인 것의 補充의 必要性은 先驗的인 것을 통해서는 인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形式을 事物化하고, 形式을 器官으로서, 그릇으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내지는 Kant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Kant에게 전가한다. 亞流들의 한 다른 誤解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主觀性和 객관성을 “한 正確한 選言의 肢로서³⁶⁾” 서로 對立시키고 그리고 純粹直觀을 主觀적 特質로서 파악했다. 認識을 相對化하지 않고 그리고 主觀化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認識을 主觀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度外視하고 認識을, 한 客觀的인 外的인 경험 안에 固定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경험에 관한 論議는 오직 主觀 안에서 形式으로서만 증명될 수 있는 先天的인 것의 妥當에 의거해서 비로소, 可能하다는 것이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主觀性和 客觀性이 批判的인 視點下에서는 그러한 方式으로 對質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완전히 相異한 妥當의 層에 속한다. 先天的인 것으로서 認識批判的으로만 중요하게 되는 主觀的인 것은 오히려 先驗的인 것에서 그의 보충을 가진다. 이 先驗的인 것은 그 스스로가 主觀的인 것의 보충으로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先驗的인 것이 定位하고 있는 것은 數學的 自然科學 전체이다. 主觀的인 것은 全體 分野의 오직 한 상대적으로 非獨立的인 斷面만을 空間과 時間으로서 規定한다. 이 非獨立性은 지금까지 이미, 先驗的 感性論이 先驗的 論理學에 속하는 문제범위를 때때로 지족하지 않고서는, 수행될 수 없다는 것에서 表現되었다. 물론 先驗的 感性論에서는 아직 아무런 事物도 論議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는 純粹直觀만이 論議된다. 그러나 이미 客觀들에 의해 촉발되는 主觀의 形式的인 상태의 規定—이것은 단지 그의 대상들에 대한 意識의 感性的 관련성만을 표시한다.—에 있어서는 對象들의 思想과 함께 先驗的 論理學의 思想過程의 先取가 不可避하다 이것은 다음의 文書로써 증명된다. 즉 個別的인 先天的 契機들을 서로서로 分離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보다 高次의 統一을 向해 價值批判的인 分析을 위해 놓여져야 한다는 것에서, 증명된다. “結論”에서 Kant는 空間直觀이라는 先驗的 概念의 成果를 先天的 認識으로서 밝힌다.³⁷⁾ 결론이 이미 言及된 것의 단순한 總括 以上の 것인

34) S. 192.

35) S. 193.(B41)

36) S. 218.

37) S. 222.

限, 여기서 先驗的 感性論의 終結에서 인식종류를 넘어서 認識對象으로 더우기 識識양식의 規定을 위해서 건너가는 것이 正當한 것으로서 그리고 必須的인 것으로서 立證된다.

참 고 문 헌

1. Gottfried Martin, Immanuel Kants Ontologie und Wissenschaftstheorie.
2. Walter Bröcker, Kant über Metaphysik und Erfahrung.
3. Heinz Heimsoeth, Studien zur Philosophie Immanuel Kants
4. Friedrich Kaulbach, Philosophie als Wissenschaft.
5. Hermann Cohen, Kants Theorie der Erfahrung.